

# 사무총장 없이 일단 출발...사무국 발족·예산 확보 급선무

## 조직위 출범 광주세계수영대회 향후 과제와 전망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5월19일 창립총회를 열었지만,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 공석으로 인해 법인 설립 등 조직위 출범이 미뤄져왔다.

하지만, 문체부와 광주시가 사무총장 없이 우선 조직위를 출범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 구성은 어떻게=조직위는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법인으로 정치, 행정, 경제, 체육 등 각계 인사와 국제대회 전문가 등 4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조직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조직위는 대회운영 예산과 수익사업 등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대회 상징물 개발, 국제수영연맹(FINA)과 교류, 홍보·마케팅 활동 등 대회 지원을 주도한다. 총회에서는 정관 제정, 위원장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예산안 심의·의결 등 안건이 처리된다.

조직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설립 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 사무국을 발족해 대회 준비를 하게 된다.

광주시는 국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35명 규모로 사무국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대로 승인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시 관계자는 "9월까지 사무국을 발족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통상 5년전 조직을 갖는 다른 국제대회 준비과정과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을

## 각계 인사 47명으로 구성

## 조직위 법인 설립으로

## 사무국·예산 확보 쉬워질 듯

수도 있지만 대회 시설, 선수촌 등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해결 과제=조직위는 우선 출범하게 됐지만, 광주시의 수영대회 전담부서적인 지원본부 구성은 여전히 난항인 상황이다. 국제대회인 만큼 조직위 법인 설립과 사무국 신설은 문체부 소관이지만, 지원본부 구성은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부이사관(3급)을 본부장으로 2과, 4담당, 24명 규모의 지원본부 조직 승인을 요청했다. 설치기간은 이달부터 2020년 6월까지 4년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미온적이다. 시는 이달 정기인사에 맞춰 조직 신설이 승인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행자부는 최근 회신을 통해 직급(3급) 책정의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려했다.

행자부는 조직위와 사무국이 구성되지 않았고 대회시설 사업계획과 총사업비 미승인, 현 단계에서 대회의 규모와 재반여건이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올해 광주시 노조가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하면서 행자부와 '불편한 관계'에 놓이면서 번번히 지연되는 것 아 니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예산 확보도 풀어야 할 과제다. 최근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2차 예산심의에서도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내년 예산 19억원이 책정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시가 요구한 74억원 가운데 시설 설치설계비 등에 해당하는 19억원을 반영했지만, 이마저도 기재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된 3차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조직위 법인 설립 등이 이뤄지면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어떻게 치러지나=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열리는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7개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하며 7~8월 중에 29일간 열릴 예정이다.

주경기장은 남부대 수영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가변 관람석은 애초 검토된 규모에 비해 줄이고, 선수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챔피언십 대회와 마스터스 대회를 분리 개최하기로 했다.

FINA 측은 관심이 쏠렸던 주경기장을 남부대 수영장으로 하되 관람석 규모를 애초 검토된 1만5000석이 아닌 1만1000여석으로, 4000석 줄어도 좋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농수축산 다 죽어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이 ‘김영란법’이 농수축산업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경제 악영향 여부 논란

### 오늘 판결 ‘김영란법’ 쟁점

###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 전망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변형과 기자회견,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이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는 이들이 낸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위헌성을 심리했다. 심판 대상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뉜다.

핵심은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하는 것(법 2조 1호 라, 마목·2호 다,라목)이 언론의 자유와 사립학교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법 9조 1항 2호, 22조 1항 2호, 23조 5항 2호)도 주요 심판 대상이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과 ‘사회상규’(법 5조 1항, 2항 7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법 8조 3항 2호, 10조

1항)도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판 대상 가운데 일부 조항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일부 위헌 결정을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위헌 결정이 아니더라도 다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거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법 시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평가와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경륜으로 당 안정 끌어냈지만 조기 전대·독주 논란 부담

### 박지원 비대위원장 취임 한달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8일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는다. 당 내외에서는 박지원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가 '4·13 홍보비 파동'으로 사퇴한 뒤 곧바로 구원투수로 나섰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의 최대 과제로는 총선 홍보비 파동으로 입은 당의 이미지 손실을 만회하고 사분오열된 당을 추슬러야 하는 것으로 집약됐다.

이에 박 비대위원장은 “바쁜 쫓달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꿀벌론’으로 당

의 단합을 이끌어 내며 홍보비 파동으로 흐트러진 당의 분위기를 재 정비했다. 여기에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총선 홍보비 파동에서 한 숨 돌리게 되자 박 비대위원장은 당의 골격을 갖추는데 매진하고 있다.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당헌·당규 제·개정 위원회도 출범시켰다. 또 매주 의원총회를 정례화하고 당무 및 회계 보고를 의무화해 당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토록 했다.

지난 25일에는 지역위원장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창당 후 처음으로 개최해 당내 단합을 다지기도 했다.

숨 가쁜 한달을 보냈지만 아직도 난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조기 전당대회 개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데 따르는 ‘독주’ 논란도 부담이다.

여기에 정기국회에서도 선출해야 한다.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수권정당의 실력을 가늠하는 전초전의 성격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연말까지 어떠한 리더십으로 국민의당을 끌고 가느냐에 따라 여소야대의 정국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공재 그림속 수박, 무더위가 싸~악



김은영의 '그림 생각'

### (163) 수박

올해 여름을 폭염과 가마솥더위라고 표현하기엔 뭔가 미진한 것 같다. 급기야 불타는 태양의 열기를 돌 아래 가둬 놓은 듯한 ‘열돔’이라는 최상급의 단어까지 등장했으니 말이다.

허름해진 기억력 탓일까. 어린 시절 여름날은 아무리 더위도 선풍기 바람 아래 시원한 수박을 한 입 베어 먹으면 여름나기가 좋았다. 조금 더 호사를 부려 얼음 동동 띄운 수박화채 한 그릇을 비우면 더위가 저만큼 물러갔던 기억이 아련하다.

가상관측 사상 올해가 가장 덥다고 하니, 시원한 추억과 함께 하는 것일까

우리 옛 그림 속 ‘수박 그림’이 더욱 반갑다. 지난해 들렀던 해남 녹우당에서 만난 공재 윤두서(1668~1715)의 수박 그림을 대하고 공재가 정물화를 남겼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돼 몹시 가슴 뛰었던 생각이 난다.

공재의 ‘채과도(菜果圖)’는 석류와 유자, 매화가지 등을 참외모양의 주름진 그릇에 담은 ‘석류매지도(石榴梅枝圖)’와 쌍폭을 이루는 그림이다. 우리 옛 그림에 정물화 성격이 지닌 잡화 계통의 그림인 기명절지화(器名折枝畵)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채과도’는 본격적으로 서양정물화의 구도 및 배치를 따르면서 작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정물화로 여겨지고 있는 그림. 수박, 가지 두 개, 참외 등 여름 과일과 채소가 백자그릇에 담겨져 있고 특히 먹이 번지는 화면을 담백하게 보여주는 수박 그림에서는 뚜렷하게 묘사된 서양식 음영법도 눈길을 끈다.



윤두서 작 '채과도'

공재 하면 한국남종화를 열었다는 미술사적 무게와 함께 인상적인 자화상과 풍속인물화가 먼저 떠오르지만 정물화를 그린 화법과 소재에서도 진취적 성향을 엿볼 수 있다. 주변에 흔해 지나쳤던 수박, 참외, 가지 등 과일과 채소가 공재의 화폭에 담기면서 예술 작품의 모델로 재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